

삼포·문암 국제통일관광도시 급물살

고성통일관광도시(주) 중국 선양시 증쉬그룹과 투자의향서 체결

지난 2007년부터 삼포·문암 관광지구 일대 1,200만평의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통일관광도시' 건설사업이 최근 중국 선양시의 증쉬그룹에서 1조원 규모의 외자유치를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성통일관광도시 주식회사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성통일관광도시(주)와 중국의 증쉬그룹 양사는 지난달 9일 국제통일관광도시 건설과 관련해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증쉬그룹은 오는 8월 체결될 합작투자 본계약서에서 정한 투자절차에 따라, 신규 설립될 SPC(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회사)에 59.5억위안(한화

약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증쉬그룹의 투자금은 사업진행 단계별로 SPC에 유입돼 토지비 등 사업추진비로 사용된다.

증쉬그룹은 중국 전역에 사업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요녕성 인근 후루도시의 연해금융센터에 4조3천억원, 중국약도시 종합프로젝트에 3조원을 투자하는 등 부동산 개발과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증쉬그룹의 증창표 회장은 요녕성절강상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성통일관광도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의향서 체결로 외자유치를 통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성군은 향후 전쟁과 평화를 테마로 한 4계절 복합휴양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실제로 막대한 외자유치가 과연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인지가 미지수로 남아 있다.

또 국토해양부 등의 사업승인 여부가 과제로 남아 있으며, SPC에 고성군이 참여할 경우 막대한 부채를 떠안을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이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고성군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사업 성패 여부를 가늠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최광호 기자



삼포·문암관광지구 일대 1,200만평의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통일관광도시' 조감도.

■국제통일관광도시 그동안 추진 내용

- 2007년 9월 삼포문암관광지구 사업타당성 검토
- 2007년 10월 바온홀딩스 사업의향서 고성군에 제출
- 2008년 2월 계약금 10억원 금강농협에 예치
- 2008년 2월 삼포, 송암, 문암 주민설명회 개최
- 2008년 9월 3만1천평 계약자 계약금 지급
- 2008년 12월 고성군-바온홀딩스 MOU 및 이행각서 체결
- 2009년 6월 강원도청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 2010년 3월 사업계획서 국토해양부에 제출
- 2010년 8월 3만1천평 계약자 가운데 2만6천평 잔금 지급
- 2010년 9월 기본설계 발주
- 2011년 1월 고성통일관광주식회사 SPC 설립

■국제통일관광도시 향후 추진 계획

- 2011년 6월 증쉬그룹과 투자의향서 체결
- 2011년 7~8월 증쉬그룹과 본 계약 체결
- 2011년 7~8월 고성군과 본 계약 협의
- 2011년 7~8월 1차 선도사업지 32만평 기본계획 용역발주
- 2011년 7~8월 신발전지역 종합계획 국토부 및 강원도와 협의

농어촌공사 윤리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최돈환)는 지난 13일 지사 회의실에서 외부 고객만족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고객만족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고객만족 실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은 고객만족 우수사례, 전화응대 요령,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표현방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북지사 관계자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해 오고 있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고객이 감동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삼성생명(032830)

일본 지진사태 이후를 기점으로 시작된 국내증시의 상승 랠리는 4월 말까지 2개월 가까이 전개되면서 2200선을 웃도는 흐름을 보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지만 하던 지수는 5월부터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 6월 중순까지 하락 과정을 겪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는 220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였고 이내 2000선 이탈이 염려되기도 했다.

6월 중순 이후 시장은 그리스 긴축 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분위기는 급선회하였고 단기간에 급등, 2200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3개월 동안 지수는 200포인트를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된 셈이다. 시장 변동성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금통위 금리결정, 윤선 만기 등으로 조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한다.

시장은 짧은 조정 이후 실적 발표기간과 맞물려 연 고점 갱신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조정을 또 다른 수익 창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분기와 같이 이번에도 자동차, 화학, 정유의 주도주만 가

는 장세가 전개될지, 아니면 그동안 소외당했던 전기전자를 비롯한 금융 업종 등이 상승하면서 키 맞추기를 전개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기에서 금융주는 투자에 매력적이다. 은행을 비롯한 보험은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금융 산업은 향후 주 공략 대상이다. 금융 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투자 유망한 기업들의 육성 가리기를 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업은 국민적 성향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지속 성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내 보험업의 선두주자는 삼성생명이다. 우여곡절 끝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고 상장 당시부터 투자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지금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삼성생명 주가 역시 제 가치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의 관심이 시들해진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6개월 후 주가가 어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을지 사뭇 기대된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